

2017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결과자료집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목 차

하나. 인사말

-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뮤지엄 5
-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양원모

둘. 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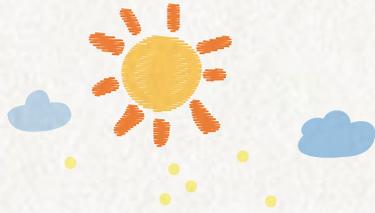
-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9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전지영
- 두근두근! 일요일이 기대되는 토요일 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나리

셋. 제 8기 어린이자문단

- 궁금해요! 어린이자문단의 역사 15
-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은요?
- 어린이자문단은 000이다!
- 2017년 우리들의 활동
- 찰칵, 사진 속 우리들

넷. 활동을 마치며

- 속닥속닥, 우리들의 이야기 31
- 우리를 바라 본 부모님의 이야기



하나, 인사말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뮤지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는 어린이자문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1년 9월에 개관하였는데 첫 문을 열기 2년 전 어린이자문단 1기가 꾸려졌다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박물관을 짓고자 하신 분들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엄”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어린이자문단 1기는 5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백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2017년 어린이자문단 8기는 31명입니다. 초등 3,4,5 학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린이박물관 전시와 교육 내용 개발에 자문을 하여줍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 개발이 되도록 어린이 입장에서 도움말을 주며 어린이들의 바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들이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면 흔쾌히 참여하여 작가들과 협업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산출물을 내어 오기도 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자문단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자문단이 뮤지엄 현장 수업에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후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행사 때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곳곳에서 1기부터 7기까지 어린이자문단이 일구어낸 산출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문단 소속 어린이들이 작가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이야기와 생각이 녹아든 심터 의자, 또래 친구나 아우들이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에서 안전하게 잘 놀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백 담은 시설 이용 안내서 등등 올해 2017년 어린이자문단 8기도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 미니씨어터를 별난 전시실로 전환하며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전시를 처음 선보였는데

이 전시의 미션 수행 기동줄거리 구성과 등장 동식물 형상화 등등, 미디어 작가들과 협업하며
특특히 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자문단 8기 활동 자료집을 엮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일년동안의 여러 활동을 찬찬히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자문단 8기 여러분, 함께 하여 주어 고마워요. 그리고 어린이자문단과 호흡을 맞춘
작가 선생님, 학예사 선생님,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자문단과 함께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늘 밝고 푸르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양원모



우, 이 는 2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4일, 색동회 어린이날 행사 중)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처음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즐거운 상상이 살아있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주축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자문단이 오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은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더 유익할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거리를 나누어줍니다. 자칫 '어린이 전문 박물관'을 표방하면서도 어른의 눈높이와 잣대로 채워가는 오류를 줄여주면서,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 되는 데에 혁혁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덕분에 우리 박물관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는 유기체로 존재합니다.

또한 어린이자문단 덕분에 박물관은 질적, 내용적으로 훨씬 깊이 있는 곳이 되어갑니다. 자칫 박물관은 전문 지성 집단에 의해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린이자문단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알게 됩니다. 박물관의 어떤 전문가나 학예연구사들도 이들 만한 상상력과 사고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이지요. 한 예로, 올해 <컬러풀 정글>이라는 멸종위기 동물 소재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어린이자문단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워크숍 중 '앞으로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멸종될까' 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서 이대로라면 돼지는 곧 멸종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다운 발상이라며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식물의 멸종 이유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확인받은 것 같아 뒷단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서 나누어준 자문단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림들은 실제 전시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 완성도를 높여주었지요.

전시물 제작을 마무리할 즈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단순히 엉뚱하고 재미있다고만 할 수 있을까? 도리어 어른보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본능적으로 섬세하고, 어른들이 갖지 못한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충만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문득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자문단 친구들의 활동은 그렇게 박물관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박물관을 빛내주는 멋진 기획자들이지요.

그럼 이처럼 고마운 어린이자문단 친구들에게 박물관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문단 활동에서 얻게 될 가장 큰 유익은, '함께의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전시든 교육이든 던져지는 질문거리에 대해 함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종합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 한자녀 가정이 늘어가는 요즈음, 경쟁이 아닌 상호작용만이 존재하는 시간,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 세상에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섬김의 경험치만으로도 자문단 친구들은 이미 충분히 멋진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추억들이 친구들의 인생 여정에 틀림없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작은 지면을 빌어, 한 해 동안 함께 해 준 서른 한 명의 자문단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활동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자문단 운영을 이끌어준 유나리 학예연구사 선생님께도 가볍지 않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어른보다 늘 한 발짝 더 새로운 어린이자문단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전지영



두근두근! 일요일이 기대되는 토요일 밤!



“두근두근, 일요일이 기대되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느껴지는 ‘설렘’은 어린이자문단 담당자로서 어린이자문단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감정이었습니다. 1~2개월을 주기로 진행되는 어린이자문단의 활동은 담당자인 저에게도 언제나 ‘설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창의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엔 어린이들에게 어떤 경험치를 줄 수 있을까?’

‘박물관 곳곳에 어린이자문단의 손길이 닿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기획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의 활동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정형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어린이자문단의 의견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어린이자문단이 어린이날과 같은 박물관의 큰 행사 날에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배려, 소통, 협동’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자문단 어린이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흐림’보다는 ‘언제나 맑음’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저 또한 시간을 역행하여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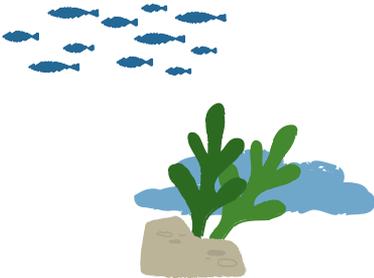
처음에는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낯선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종이에 적는 일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점차 서로 하고 싶다고 외치는 어린이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 기획에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그림이 반영된 것은 어린이자문단 친구들에게도, 담당자인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의 손길이 닿은 이번 전시는 전시물을 체험하는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박물관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준 제 8기 어린이자문단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제 8기 어린이자문단으로서 함께 해준 31명의 어린이자문단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어린이자문단 담당자로서 어린이의 성장과정의 결정적인 시기에 함께 한 제 8기 어린이자문단 활동이 자문단 어린이들의 삶의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나리





셋, 제8기
어린이가문단



궁금해요! 어린이자문단의 역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특별한 경영진인 어린이자문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표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어린이들입니다. 2011년 박물관이 개관하기 이전인 2009년 제 1기 어린이자문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이 활동해왔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날 등 박물관의 주요 행사 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어린이자문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린이자문단 운영 현황

연도	기수	선발 인원	
2009-2010년	제 1기 어린이자문단	50명	
2010-2011년	제 2기 어린이자문단	30명	
2012년	제 3기 어린이자문단	30명	

2013년

제 4기 어린이자문단

29명



2014년

제 5기 어린이자문단

30명



2015년

제 6기 어린이자문단

30명



2016년

제 7기 어린이자문단

30명



2017년

제 8기 어린이자문단

31명



역대 어린이자문단 대표 활동

기수	활동 내용	활동 사진
제 1기 어린이자문단	<p>물 체험관 탐방 및 어린이자문단 환경 신문 발간</p> <p>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 내에 있는 물 체험관을 탐방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린이자문단의 환경 신문을 만드는 워크숍</p>	
제 2기 어린이자문단	<p>박물관의 상설전시실 '미니씨어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 「너는 빛, 나는 그림자 - 그림자 여행」 자문 활동</p> <p>상설 전시실 '미니씨어터'에서 진행될 교육 프로그램(그림자 연극)을 어린이자문단이 먼저 체험하고,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활동</p>	
제 3기 어린이자문단	<p>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 1주년 행사 참석 및 개관 행사 돕기</p> <p>박물관의 개관 1주년인 첫돌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자문단으로서 행사의 주요 활동(테이프 커팅, 전시 체험 시연 등)을 돕는 활동</p>	
제 4기 어린이자문단	<p>예술작가와 함께 하는 벤치 워크숍</p> <p>예술 작가와 함께 관람객의 휴식을 위해 박물관의 유휴 공간에 비치할 벤치를 만드는 워크숍</p> <p>※ 벤치 워크숍은 3~5기 어린이자문단 워크숍으로 3년 간 진행됨</p>	

제 5기
어린이자문단 제 3회 아시아 어린이박물관 컨퍼런스
(Asian Children's Museum
Conference) 연계 프로그램 봉사활동

제 3회 아시아 어린이박물관 컨퍼런스와
연계되어 진행된 다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봉사활동



제 6기
어린이자문단 '봄을 담아요' 토마토 모종 심기
친환경 화분에 토마토 모종을 심어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박물관의
대 주제 중 하나인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을 독려하는 워크숍



제 7기
어린이자문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안전하게
잘! 노는 방법' 소책자 기획 및 발간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어린이박물관
에서 안전하게 잘 노는 방법을
어린이들의 생각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소책자로 발간하는 워크숍



제 8기
어린이자문단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
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
공동 기획

미디어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함께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의
주제인 멸종위기 동물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멸종위기 동물과
그 원인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워크숍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은요?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은 경기도 내 31명의 어린이들이 선발되어 올 한 해 동안 총 6회의 정규 활동, 3회의 추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0일,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발대식에서 어린이들은 서로 협동하고 배우며 성실히 활동할 것을 선서하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제 8기 어린이자문단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후,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날 행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픈 프로그램,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간다면?’에서 박물관에 찾아오는 동생, 친구들을 위해 직접 선생님이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돕는 박물관의 든직한 지원군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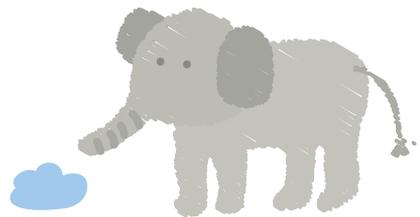
무엇보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의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 기획의 참여는 자문단어린이들과 박물관 모두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이자 추억일 것입니다. 전시에 어린이자문단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미디어 아티스트와 테크니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의 주제였던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동물들이 왜 사라졌는지, 사라진 동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자문단 어린이들 모두가 큐레이터가 되었던 이 워크숍의 결과물은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의 전시 스토리와 전시를 소개하는 도입 영상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 개막식에 참석하여 박물관을 대표하는 어린이로서 자리를 빛내고, 전시 기획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모든 어린이들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01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의 다양한 활동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Colorful Jungle'



어린이자문단은 000 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상상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사탕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박물관의 씨앗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미션자다.	어린이자문단은 재미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사이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박물관의 역사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선생님들의 도우미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대표자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침대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즐거움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친구천국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신나는 곳이다.		어린이자문단은 휴식소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박물관의 대표자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자문단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생각나무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재미있는 곳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도움이다!	어린이자문단은 블랙홀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신비로운 곳이다.	어린이자문단은 힘이다.		어린이자문단은 기쁨을 주는 곳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창의력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추억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좋은 거다.	어린이자문단은 밥도둑이다.	어린이자문단은 관계자이다.	어린이자문단은 경험이다.		어린이자문단은 즐거웠다.

2017년 우리들의 활동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발대식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보아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열려라, 뮤지엄 파크'의 체험 프로그램 보조 강사로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

2017.4.30.
1차 정규 활동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오픈형 프로그램

'우리 눈은 어떻게? 나만의 착시액자 만들기' 돕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오픈형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활동

- 교육 프로그램 보조강사
- 양케트 존(스티커 설문조사)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 프로그램 사진 촬영

2017.5.5.
2차 정규 활동

2017.5.27.
1차 추가 활동

2017.7.9.
3차 정규 활동

2017.7.16.
4차 정규 활동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이 되어 보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열려라, 뮤지엄 파크'의 체험 프로그램 보조 강사 활동 (봉사활동)

- 알록달록, 사탕나무 만들기
- 바람으로 민들레 홀씨를 날려요
- 씨앗풍뎌를 먹어요
- 어린이날 행사의 사진사가 되어 보자!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공동 기획 (1)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의 주제(멸종위기 동물)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개막식 참여
및 전시 사후 자문 활동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 개막식 참여와 전시 사후 자문 활동

- 공로상 수여
- 테이프 커팅
- 전시 체험 시연
- 어린이 인터뷰
- 전시 사후 자문 활동



내가 바로 선생님! '초등학교에 간다면?'

보조강사 참여하기

학령기 준비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간다면?'의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동생들에게
초등학교 생활을 전하는 활동

2017.12.9.-17.
3차 추가 활동



2017.12.3.
6차 정규 활동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자문 활동,
어린이자문단 자료집 만들기

2017-18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자문과
제 8기 어린이자문단 활동 수기를 작성하는 활동

2017.11.2.
5차 정규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공동 기획 (2)

미디어 아티스트와 테크니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함께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의
기획을 위한 워크숍

2017.10.29.
2차 추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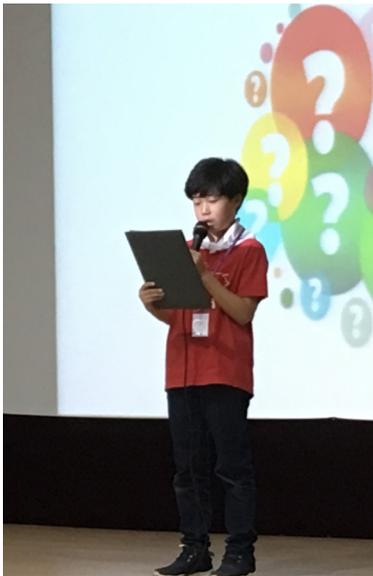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개막식을 준비하자!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 개막식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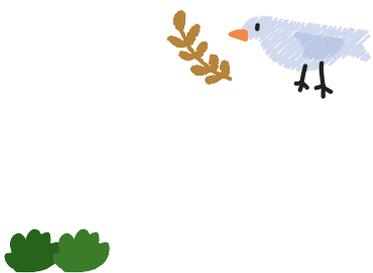


찰칵, 사진 속 우리들

☀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발대식



[1차 정규 활동]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보아요!



 [2차 정규 활동]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이 되어 보자!



 [3차 정규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공동 기획 (1)



 [4차 정규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공동 기획 (2)



 [5차 정규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개막식 참여 및 전시 사후 자문 활동





 [6차 정규 활동]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자문 활동, 어린이자문단 자료집 만들기



🌿 [1차 추가 활동]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오픈형 프로그램 '우리 눈은 어떻게? 나만의 착시액자 만들기'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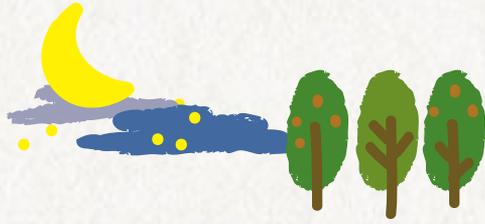


🌿 [2차 추가 활동] 미디어 체험 전시 '컬러풀 정글' 개막식을 준비하자!



🌟 [3차 추가 활동] 내가 바로 선생님! '초등학교에 간다면?' 보조강사 참여하기





네,
,

활동을 마치며



속닥속닥, 우리들의 이야기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구유림

1년 정도 어린이자문단을 하면서 어린이날 봉사활동과 미디어 전시 기획 등 많은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미디어 전시 기획이었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스크린에 뜨고, 그 동물을 터치했을 때 반응도 재미있었다. 미디어 전시의 주제는 멸종 위기 동물이었는데, 나도 앞으로 동물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민재

컬러풀 정글 개막식 때, 전시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소개가 길어 조금 지루했지만, 어린이자문단이 가장 특별하게 불러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가영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친구들도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활동인 컬러풀 정글을 박물관의 다른 친구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시원

어린이자문단의 소감을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린이자문단 활동은 재미있었다. 그리고 미디어 전시인 컬러풀 정글이 매우 신기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나영

모두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서 컬러풀 정글 전시 기획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내년에도 컬러풀 정글과 같은 전시 기획을 하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예솔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봐서 즐거웠다. 가끔 활동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전 7기 어린이자문단 활동 때와는 다른 활동들을 해봐서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련희

어린이자문단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 같다. 여러 사람을 돕는다는 게 신기하였고, 재미있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서먹하였지만,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은유

내가 어린이자문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물을 색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색칠을 하고 나면 예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우민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착시현상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보조강사로서 설명을 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기회가 적은 데, 좋은 경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준이

어린이날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미있게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뿌듯했다. 어린이자문단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놀러 와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김평강

내가 활동한 것이 일부 반영되어 보람을 느꼈고 재미있었다. 외부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는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행복했고, '씨앗풍뎌 먹기, 사탕 나무 만들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 기획 워크숍이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민서하

나는 작년에 7기 어린이자문단에서도 활동했었는데, 이번 어린이자문단 활동도 정말 재미있었다. 어린이자문단 덕분에 평소에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진짜 내년에도 하고 싶는데 할 수 없어서 슬프다. 선생님, 저 내년에도 하면 안돼요?? 그리고 자문단 활동 때마다 먹는 간식도 모두 꿀맛이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박수민

어린이자문단 활동 중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가 재미있었다. 또한, 활동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정말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박주형

어린이자문단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다. 나는 어린이자문단을 성실하게 해서 뿌듯했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서 좋았다. 앞으로도 자문단을 하고 싶지만, 6학년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쉽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배시우

미디어 전시가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손으로 동물을 만지면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서승옥

어린이자문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린이날 행사 때,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간식 중에는 피자가 가장 맛있었고, 앞으로도 피자 간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안정민

두 달에 한 번씩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간식이 맛있어서 좋았다. (간식이 서양식으로 나오는 것은 싫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미디어 전시인 '컬러풀 정글'을 만드는 게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오서진

어린이자문단으로서 활동하면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 나와서 행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미디어 전시인 '컬러풀 정글'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원서윤

미디어 전시를 할 땐 '작가와와의 만남'이 재미있고 좋았다. 어린이날때 보조강사를 하면서 뿌듯했다.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장민서

처음에는 떨렸는데, 계속 오면서 친구도 생기고 익숙해졌다. 어린이자문단에 계속 올 때에는 투덜 거렸는데, 막상 와서는 계속 잘했다. 제일 좋았던 활동은 컬러풀 정글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이건웅

7기 자문단에 이어 8기 자문단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활동을 할 때마다 즐거웠다. 비록 9기 자문단으로서는 활동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응원할 것이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전유현

7기에 이어 8기 자문단의 첫 활동에 올 때는 두 번째라서 느낌이 조금 달랐고, 계속 8기 활동을 하니 7기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컬러풀 정글 활동이다. 왜냐하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VR 활동을 하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이규진

어린이자문단을 하면서 어린이박물관의 관계자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회의한 것이 박물관에 실제로 반영되어서 좋았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최수아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설레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가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9기 자문단을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9기 자문단을 또 하고 싶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임기연

어린이자문단 활동 모두 재미있었다. 그리고 일 년이 금방 지나가서 너무 아쉽다. 내년에도 9기 어린이자문단을 할 것이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최우진

어린이자문단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멸종동물 살리기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동물을 색칠하고 화면에 띄우는 것이 신기했다.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9기 어린이자문단들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임세린

8기 어린이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맛있는 간식이었다.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간식 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 간식과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한서영

8기 자문단 활동 동안 재미있었던 것은 컬러풀 정글이었다. 우리 손으로 색칠한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만 할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고학년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나곡초 3학년 김시원

처음에 어린이 자문단으로 뽑히기 위한 면접을 볼 때는 정말 많이 떨리고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박물관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린이 자문단으로 뽑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부담감은 없어지고 재미있게 참여하였습니다. 발대식 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자문단으로 잘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자문단 선서를 하고 '어린이 자문단'이라고 쓰인 티셔츠, 가방, 스카프를 하고 박물관에 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는 어린 동생들과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와 봉사를 하면서 저에게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선물 받고 제가 주인공인 날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또, 상설전시실 새단장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에 참여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작품도 만들면서 멸종동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11월 2일에 우리가 만든 컬러풀 정글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서 정말 기뻐고, 여러 친구들과 관람객들이 제가 만든 작품을 볼 거라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 멸종위기 동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도새, 코끼리 등등 여러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것이 놀랍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분리수거같이 기본적인 것은 꼭 지키고, 멸종위기 동물을 아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어린이자문단 8기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점이 많았고 재미있게 활동했습니다. 자문단이 되기 전에는 어린이박물관은 전시를 보러 오는 박물관 중에 하나였는데, 자문단이 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어린이자문단 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서농초 4학년 전유현

나는 어린이 자문단 7기, 8기를 연속으로 활동했던 전유현이야.

처음 7기 자문단이 되었을 때 발대식에서 선배인 6기 어린이 자문단과 함께 깃발 찾기 미션을 했었어. 이 미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깃발을 갖고 갔을 때는 기분이 얼떨떨하고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 어린이 자문단 7기 동안 나는 12월에 했던 '초등학교에 간다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 활동에서 나는 리코더로 예비 초등학교 7살 동생들에게 '잠자리'라는 노래를 불러주었어. 내가 리코더를 잘 불지 못해서 가끔씩 뽁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계속 박수를 쳐주어서 기분이 뿌듯했어. 동생들에게 선배의 능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

이제는 8기 친구들 모두가 같이 경험한 8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8기 발대식에서 나는 7기를 해서인지 떨리지도 않고 선배처럼 느껴지고 한번 해보아서인지 자부심도 있었어. 작년보다 좋은 기분으로 발대식에 참여했어! 5월, 8기 자문단 활동에서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이 되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서 나는 '바람으로 민들레 훌씨를 날려요'의 보조강사로 그곳에 오는 아이들에게 종이컵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어. 그런데 그곳 선생님들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우리가 설명해주려고 할 때마다 말을 막고 먼저 하셔서 배우고 준비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해서 서운했어.

그 다음 최근에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활동한 중요한 프로젝트 '컬러풀 정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컬러풀 정글'의 첫 번째 활동에서는 먼저 멸종되고 있는 동물과, 이미 멸종된 동물을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였는데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신기했어. 두 번째 활동에서는 선생님께서 도면을 나눠주셔서 그 도면에 색칠을 했어. 우리가 모르는 멸종동물이 많다는 것을 배워서 그 때 활동이 제일 재미있었어. 중요한 점은 멸종되는 동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친근한 동물도 있다는 것이야. '컬러풀 정글' 개막식에서는 사회 선생님께서 그 곳에 오시고 전시장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소개한 후 그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어려워져 알아들을 수 없었고, '여기가 어린이 박물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한 시간이었어. 개막식이 끝나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았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스캐너에 스캔하면 그림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면서 직접 터치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이야. 동물을 손으로 짚으면 손가는 대로 동물이 움직였으면 더 신기했을 것 같아. 그래도 신나는 체험이었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박물관에 생겼으면 하는 것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미니 집을 만들어 어린이가 그 집 안을 인테리어 해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전시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자문단 활동 할 때 우리가 잘 못해도 어른들이 나서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2년 동안 자문단이어서 주말이나 평일에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

제 8기 어린이자문단
잠원초 5학년 김우민

나는 1년 동안 자문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컬러풀 정글' 공로상을 대표로 수여받았다. 컬러풀 정글은 미디어 전시로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즐기는 전시이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면서 많은 동물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동물도 살리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자는 내용이다. 도안에 색칠을 한 다음 스캔해서 화면에 띄우면 내가 만든 동물이 입체적인 모습으로 정글 속에서 움직인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과 쓰레기가 나오면 화면을 마구 터치해 잡으면 멸종동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션성공이 된다. 그동안 멸종동물 교육받고 상상으로만 전시회를 계획했을 때는 감이 잘 안 왔었는데, 개막식 날 미디어전시실로 들어가 직접 확인하니까 정말 신기했다. 자문단 아이들이 다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더 뿌듯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작은 파티까지 해서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착시현상을 주제로 보조강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하는 활동이 있었다.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돼서 어린이들에게 착시현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보조강사활동을 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걱정과는 달리 내 설명을 잘 들어주던 아이들에게 고마워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경험이 되었다.

자문단 마지막 활동은 '초등학교에 간다면'으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7세 동생들에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나의 경험으로 유치원과 학교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학교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 해주었다. 또 나의 장기인 종이접기를 활용해서 동생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처음에 자문단을 할 때는 회의만하는 어려운 자문단 일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 해보니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꼭 할 것이다. 다음 자문단에서는 활동시간, 횟수, 역할을 늘려서 도움을 많이 주는 자문단원이 되고 싶다. 전시회 기획의견도 내고, 체험도 하고, 가르쳐주는 봉사도 하면서 재밌고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우리를 바라 본 부모님의 이야기

학부모 김윤미, 오경수

하얀 벚꽃 날리던 따뜻한 봄날 서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자문단 티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던 때가 어렵듯이 생각한다. 아이의 몸집보다 조금 큰 티셔츠와 명찰을 목에 걸고는 어색한 듯 살며시 웃어 주었는데, 이제는 제법 자문단 티셔츠가 잘 어울리는 것을 보니 많이 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자문단원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몸과 함께 마음도 쑥쑥 자랄 수 있기를 바랐는데, 자문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컬러풀정글 개막식까지 참여하면서 서진이의 생각과 의지가 점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어린이자문단에 참여하는 어린이 또래 아이들은 “공교육을 통해 문화에 대한 기초 기능을 배우고 중요한 과업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되며, 이 시기에는 협동하고 어울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경우 자아 효능감이 발달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용기가 상실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서진이에게 긍정 동기가 부여되고 긍정의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자문단 선생님들과 자문단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자문단활동에 바람이 있다면, 가깝게는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조금 더 넓게는 경기도미술관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자문단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연극체험 등도 진행해 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8기 어린이자문단 활동에 함께한 자문단 어린이들과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큰 아이가 4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던 중학교 공고문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자문단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문단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경험을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활동은 어린이날 행사 '열려라 뮤지엄 파크'에서 보조 강사로 사탕나무 만들기과 프로그램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생긴 이후 6년 동안 주말에 그저 한 번 씩 들러 놀다가던 놀이터로만 생각했던 곳이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친구들에게 직접 도움도 주고 체험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린이박물관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하기 전엔 3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린이박물관을 찾아가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유치원생과 저학년만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앞섰기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는 횟수가 거의 줄었습니다. 한국사를 아직 접하지 않은 나이에기에 유적 유물에도 큰 관심이 없는 아이가 일반박물관에 흥미를 가지기엔 어려운 점도 있어 3학년이 되면서부터 박물관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지만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이 3, 4학년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시 박물관을 자주 찾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별난 전시실의 '컬러풀 정글(colorful Jungle)'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직접 도서관에 가서 멸종동물에 관해 조사도 해보고, 환경오염에 관해서도 정리해보며, 또 평소 즐겨하던 종이접기로 멸종동물 접는 법도 찾아보고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해준다면서 색종이를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생각이 조금씩 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온가족이 생활에 바빠 잊고 지냈던 멸종 동물과 자연스럽게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가족 모두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정글을 통해 초등학교에선 접하기 힘든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컴퓨터 게임만 좋아하던 아이가 자신도 프로그램을 공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싶다고 방과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신청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자문단 활동을 지켜보면서 학업이 아닌 아이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예민하던 성격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느껴지고, 첫째 아이라 부모가 챙겨주는 것만 하던 성향에서 자립적으로 목표가 하나씩 생겨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를 위한 길은 성적이 아니라 어린이 자문단의 활동처럼 아이의 꿈과 호기심, 상상력을 인정해주고 키워주면 스스로 배워 알아가는 아이가 되어 감을 직접 겪어보면서 공부를 강요했던 제 생각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모 코칭수업을 들으면서도 선뜻 실천을 못했던 저에게 어린이자문단의 활동으로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모습을 지켜주고 지지해줄 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자문단의 활동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커다란 배울 점을 안겨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이가 호기심 많던 시절에 즐겨 찾던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어린이 자문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자문단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서류를 넣었고 엄마도 함께 면접을 보던 그 떨리던 순간이 아직 생생합니다.

어린이자문단에 합격하게 되어 발대식 날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진행된 프로그램은 자문단으로서 첫 활동이어서인지 특히나 즐거워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어린이날 행사의 선생님 되어 가르치는 즐거움도 느껴보고, 사진사가 되어 여러 모습들을 촬영해 보며 사진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미디어체험 전시의 컬러풀 정글 기획 때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부족한 솜씨였지만 협동하여 그린 그림들이 훌륭하게 완성 되어 전시 된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자문단 활동 있는 날이라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열심히 참여한 덕에 8기 발대식에서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한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문단'이란 말 뜻 그대로, 어린이 박물관이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변화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되어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이 박물관을 자주 오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애정이 생기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에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자문단이 나날이 발전하여 여러 친구들이 소중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불어 어린이 박물관의 성장도 함께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아이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많이 써주신 학예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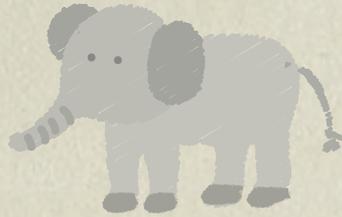
기획진행	유나리(학예연구사)
기획지원	황서윤(학예연구원)
총괄	양원모 (경기어도어린이박물관장)
기획책임	전지영 (학예팀장)
운영지원	강민지, 김지나, 김해송, 박제현, 최미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 전문국 (기획운영팀장), 김수현, 남궁진, 설정숙, 유지은, 임미숙, 임재옥, 차영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김소연, 황명준 (인턴)
디자인	오와(owoa)
펴낸날	2017년 12월
펴낸곳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소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전화	031.270.8635
팩스	031.283.5364
홈페이지	http://gcm.ggcf.kr/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본 자료집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제 8기 어린이자문단의 결과자료집입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